

이스탄불에서 전철 부문 노조 조직화에 대해 합의

2023년 11월 28-29일, 전세계 전철 노동조합들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났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 아랍세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각 도시와 국가의 경험을 교류했다. 전철 시스템은 어디서나 확대 중이고, 다양한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쟁점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01. 차별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노동권**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 파업권. 이러한 권리는 여러 국가의 전철 시스템뿐 아니라 그 외 부문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02. 우리와 동료, 승객의 **안전과 건강**. 우리는 (석면, 공해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전철 시스템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전철 노동자로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은 승객, 특히 장애인과 그외의 방식으로 소외된 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이다.
03. **신기술**의 도입은 사장이나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사용인이 협상과 협의 없이 도입한 기술은 안전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려 노동자 착취를 영구화하고 승객을 소외시킨다. 최악의 경우, 노동자의 기술과 전문성을 무시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자동화가 전철 시스템 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노동력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공정한 전환 과정을 통해 강력한 노동 기준에 맞게 기술을 활용하면, 노동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승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04. 전철 시스템을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는가** 서비스 민영화와 하도급, 노동자 아웃소싱은 경제에 대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접근법의 일환이자 안전과 사회적 조건을 해친다. 한편, 지속 가능한 공공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한, 공공 소유와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쟁취하고 지키는 것은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전철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05.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부문 내 **성평등** 촉진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건을 개발함으로써 전철 시스템을 변혁시켜, 여성 노동자의 조직적 배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하고 생리, 육아, 폐경 등과 관련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이stanbul에서 열린 회의 이후, 우리는 공공교통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함께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의 투쟁을 위해 전철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 행동을 취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분열과 분쟁으로 점점 더 고통받는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강력한 노동 기준과 더 나은 전철 시스템을 위해, 조직화, 캠페인, 교섭 역량 강화하도록 전철 노동자와 노조 대표, 간부들을 위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함.
- 특히 신기술과 성평등에 관한 모델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 다양한 산업적 및 법적 맥락 하에 전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공통의 정치적 플랫폼으로서의 전철 노동자 헌장을 개발함.
- 이스탄불에서의 논의를 다른 전철 노조로 확대하기 위해 전철 노동자 국제 화상회의를 조직함.
- 특히 안전과 민영화, 하도급, 아웃소싱이라는 공통 쟁점에 중점을 두고, 전철 노동자들과 노조가 진행할 국제 행동의 날 기획함.
- 각국의 전철 노동자들과 노조가 참여하는 노동쟁의와 캠페인을 위해 국제 연대를 조직함.
- 2024년 10월 마라케시 제46차 ITF 총회의 일부로 개최될 예정인, 차기 도시운수회의(Urban Transport Conference)에 전철 노동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보장함.



- 전 세계 전철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쟁점에 대한 논의에, 전철 사용인들의 대표 단체인 세계대중교통협회(UITP)를 참여시킴.

우리는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공공교통이다.

연대!

